

# 금빛 질주 뒤에 강철 멘탈



17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전에서 최민정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환호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권태영기자

스켈레톤의 윤성빈(강원도청)과 쇼트트랙 최민정(성남시청)의 금메달에는 '나타는 정신력'이 있었다.

윤성빈과 최민정은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남자 스켈레톤과 여자 쇼트트랙 1,500m 경기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사람의 금메달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선수단의 4위 목표에 기여할 '확실한 메달'로 꼽혔다.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며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차지한 윤성빈에게는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코스 적응'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최민정에게는 홈관중의 뜨거운 응원이라는 힘이 있었다.

반대로 두 선수에게는 오히려 '반드시 금메달을 반드시 따라 한다'는 부담감이 더해진 올림픽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챔피언의 자세는 역시 달랐다.

윤성빈은 지난 15일 열린 1~2차 시기 합계에서 1분40초35를 기록하면서 1위 자리에 올랐다. 2위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니키타 트레구보프(1분41초09)를 압도하는 기록이었다.

금메달이 눈앞에 보인 만큼 16일 3~4차 시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법도 했지만 윤성빈은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집 같은 이 트랙에서 하는 것이고 해왔던 대로 출발 수 있는 분위기라 부담감은 없었다"며 우리나라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금메달 라이벌들이 3~4차 시기에 실수를 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윤성빈은 세 차례나 트랙 레코드를 경신하며, 1~4차 시기 합계 3분20초55의 기록으로 완벽한 금메달을 만들었다. 2위 니키타 트레구보프와 1초 63까지 격차를 벌리면서 역대 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우승이 됐다.

상상하던 금메달을 목에 건 뒤에는 "(금메달이) 무겁다. 이번 메달이 역대 올림픽 메달 중 가장 무겁다고 하던데. 실감이 난다"며 웃은 윤성빈은 "(시상대 올라가는) 상상은 매일 했다. 매일 밤 꿈으로라도 꾸고 싶었지만 안 됐다(웃음). 자기 전 계속 생각했다. 결국 생각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다. TV로만 보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꿈을 이룬 소감을 언급했다.

최민정에게는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에이스'라는 기대감과 '실격'이라는 부담감까지 이겨낸 금빛 레이스였다.

최민정은 앞선 500m 결승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바닥을 짚으려다 캐나다 킵 부탱의 무릎에 손이 닿으면서 실격 판정을 받았었다. 몸싸움이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1,500m 결승이었지만,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던 최민정은 3바퀴를 남겨둔 상황에서 놀라운 스피드로 1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 영광스러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최민정은 금메달을 따낸 뒤 "500m에서 성공했던 부분이 있어서 1,500m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나를 믿자고 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손을 짚는 경우 규칙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조심했던 부분도 있었고, 1,500m가 속도가 달 나는 종목이라서 손을 덜 짚었다"며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지금도 경기 결과에 대해서

## 쇼트트랙 1500m 금 최민정

500m 실격에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

"금메달 땀지만 빨리 잊고 다음 경기 집중"

엄마 손편지에 위로 "엄마, 이제 여행가자"

## 쇼 첫 스켈레톤 금 윤성빈

라이벌들 잇단 실수에도 세 차례 트랙 레코드 경신

2위와 1초63 차...역대 올림픽 가장 압도적인 우승

"매일 시상대 오르는 상상...흠서 부담없이 즐겼다"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했다. 500m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잘 준비했을 것이다. 금메달은 땀지만 빨리 잊고 다음 종목을 준비해야겠다"고 '강철 멘탈'을 보여줬다.

세계 정상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자신과 싸움을 이겨낸 두 사람. 그 뒤에는 '엄마의 힘'도 있었다.

경기가 끝난 뒤 "추운데 보러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며 경기장을 찾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밝혔던 윤성빈은 금메달 기자회견이 끝나고 빅

스존에서 어머니를 만나 진한 포옹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민정도 "엄마가 올림픽을 앞두고 손편지를 써주셨다. 그 편지를 선수촌에 가져왔다. 시험 전날이나 힘들 때 한 번씩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그랬던 것 같다. 즐겁게 했으며 좋겠다. 너를 항상 믿고 있으니까. 너는 항상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즐겼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다"며 관중석에서 응원을 보내준 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2018 평창 메달리스트

**최민정**

- 출생 1998년 9월 9일
- 신체 164cm·54kg
- 소속 성남시청
- 주요 경력 및 수상
  - 201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1,000m·3,000m 파이널·3,000m 계주 금메달·개인종합 1위
  - 2016 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1,000m·3,000m 계주 금메달
  - 3차 1,000m 금메달
  - 4차 1,000m 1차 레이스 은메달, 500m·3,000m 계주 금메달
  -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500m 동메달, 1,000m 은메달, 1,500m·3,000m 계주 금메달
  - 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500m·1,000m·1,500m·3,000m 계주 금메달
  - 2차 3,000m 계주 은메달, 1,500m 금메달
  - 4차 3,000m 계주 동메달, 500m 은메달, 1,000m·1,500m 금메달
  - 2018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

**윤성빈**

- 출생 1994. 5.23(경남 남해)
- 소속 강원도청
- 신체 178cm / 87kg
- 주요 경력 및 수상
  - 201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BSF)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아시아 선수 최초)
  - 2017 ISF 월드컵 1차 은메달, 2차·3차·4차 금메달, 5차 은메달
  - 2018 ISF 월드컵 6차·7차 금메달
  - 2017~2018시즌 세계랭킹 1위
  - 2018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 (한국은 물론 아시아 역대 최초)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연암뉴스

### 2018 평창 메달리스트

**최민정**

- 출생 1998년 9월 9일
- 신체 164cm·54kg
- 소속 성남시청
- 주요 경력 및 수상
  - 201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1,000m·3,000m 파이널·3,000m 계주 금메달·개인종합 1위
  - 2016 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1,000m·3,000m 계주 금메달
  - 3차 1,000m 금메달
  - 4차 1,000m 1차 레이스 은메달, 500m·3,000m 계주 금메달
  -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500m 동메달, 1,000m 은메달, 1,500m·3,000m 계주 금메달
  - 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500m·1,000m·1,500m·3,000m 계주 금메달
  - 2차 3,000m 계주 은메달, 1,500m 금메달
  - 4차 3,000m 계주 동메달, 500m 은메달, 1,000m·1,500m 금메달
  - 2018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

**윤성빈**

- 출생 1994. 5.23(경남 남해)
- 소속 강원도청
- 신체 178cm / 87kg
- 주요 경력 및 수상
  - 201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BSF)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아시아 선수 최초)
  - 2017 ISF 월드컵 1차 은메달, 2차·3차·4차 금메달, 5차 은메달
  - 2018 ISF 월드컵 6차·7차 금메달
  - 2017~2018시즌 세계랭킹 1위
  - 2018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 (한국은 물론 아시아 역대 최초)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연암뉴스



지난 16일 평창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4차전 경기에서 아시아 최초 설상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의 윤성빈이 경기를 마친 후 태극기를 들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박승선기자

## 뜬 별, 진 별

스켈레톤 윤성빈 황제 등극...두쿠르스 5위 그쳐

男 피겨 日 하뉴 2연패...은퇴 무대 패트릭 쉐인 9위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빛나던 별이 지고, 샛별이 탄생하고 있다.

실 연휴 기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새로운 황제의 대관식'이 진행됐다. 먼저 스켈레톤이 역사를 바꾼 종목이 됐다.

새 역사의 중심에는 '얼음 위의 아이언 맨' 윤성빈(24·강원도청)이 있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윤성빈은 도전자의 입장이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스켈레톤의 황제'는 마르티스 두쿠르스(34·라트비아)였다.

윤성빈은 고교 3학년이던 2012년에서야 스켈레톤에 입문 후 화려한 성장세를 보이며 조급식 이름을 알렸다.

2014년 1월 대륙간컵 6차대회에서 한국 스켈레톤 사상 첫 금메달리스트가 됐던 윤성빈은 2014 소치올림픽에서는 한국 역대 최고 기록인 16위를 냈다.

그러나 올 시즌 윤성빈은 7번의 월드컵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를 거머쥐면서 황제 자리를 탐하기 시작했다.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뺏으며 심상치 않은 올림픽을 예고했던 그는 홈 트랙의 이점을 살려 가장 큰 무대에서 완벽한 질주를 했다.

윤성빈은 1~4차 레이스에서 무려 3차례나 트랙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새로운 황제의 탄생을 세계에 알렸다. 윤성빈이 항상 올려다보던 두쿠르스는 1~4차 시기 합계 3분 22초 31로 5위에 그쳤다.

스켈레톤 월드컵에서 2009~2010시즌 우승을 시작으로 2016~2017시즌까지 8연패를 달성하는 등 스켈레톤의 황제로 군림했지만 단 한 번도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보지 못한 두쿠르스의 쓸쓸한 퇴장이었다.

17일 남자 피겨에서도 진정한 황제를 알리는 무대와 몽환한 감동을 준 작별의 무대가 동시에 펼쳐졌다.

이날 일본 하뉴 유즈루(24)는 올림픽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그는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확정하며 지난 소치 대회에 이어 2연패에 성공했다. 미국의 디버튼(미국)에 이어 66년 만의 남자 피겨 올림픽 2연패였다. 여기에 그는 역대 동계올림픽 10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발목 부상으로 이번 올림픽을 장담할 수 없었던 만큼 더 인상적인 금메달이었

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클린 연기로 111.68을 받은 하뉴 유즈루는 프리스케이팅에서 206.17을 획득하며 317.85의 기록으로 2연패를 이뤘다.

2위 일본의 우노 쇼마가 306.90, 강력한 라이벌로 꼽혔던 미국의 네이션 쉐인 6차례 4회전 점프라는 신기록을 작성하고도 쇼트 프로그램 실수 연발로 5위(297.35)에 그치면서 하뉴 유즈루는 남자 피겨 황제임을 다시 한번 알렸다.

또 다른 무대의 주인공은 캐나다의 패트릭 쉐인(28)이었다. 앞선 소치 올림픽에서 '신성' 하뉴 유즈루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은메달을 목에 걸어야 했던 그에게 평창은 마지막 올림픽 무대였다.

한때 남자 피겨계를 호령했던 패트릭 쉐인은 힘과 4회전 점프를 앞세운 신에 선수에 밀리며 이번 대회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대회 단 체전에서 캐나다의 우승을 이끌며 동계 올림픽 첫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그는 마지막 올림픽 연기가 된 프리스케이팅에서 하뉴 유즈루의 바로 앞 순서에서 연기해 여론을 더했다. 패트릭 쉐인의 성적은 9위. 하지만 관중들은 오랜 시간 기립박수를 보내며 '피겨 킹'의 퇴장을 아쉬워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